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의 하위분야인 거시경제학에서는 재정수지, 총수요나 경상수지, 금리, 환율, 통화량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의 경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의 시대의 경제보다 더 상호 ①의존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국가만 위기의 영향을 ②전유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전 시대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수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한 ③활약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우선,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 정책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은행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통화 당국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절하는 이자율을 정책금리라 하고,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 ④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라 이른다. 통화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절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금리 조절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시장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아 같이 인상되고 이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 자본은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국내 통화의 수요와 외국 통화의 환전이 늘어나고 외국 통화에 대한 국내 통화의 환율은 감소한다. 이를 국내 통화가 평가 절상되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타국 통화에 비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양의 타국 통화를 더 적은 양의 자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통화는 평가 절상된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보통 통화 가치가 내려가고 환율이 증가하고, 이를 평가 절하라 한다. 다만, ②정책금리가 인하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철수하지 않아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금리와 환율을 이용한 통화정책은 국제무역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무역에서 한 국가는 무역을 통해 수출과 수입을 한다. 이때,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를 경상수지라 이른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지급 능력이 악화되어 국가의 자금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외국 자본의 투자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평가 절하하여 ③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통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④금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보유한 주요 국가의 외환을 모두 합친 금액인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요의 공급의 법칙을 고려한 ⑤외환 매매를 통해 환율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통화가 평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다.
- ②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국제적인 규모로 전개되지 않는다.
- ③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그 국가 통화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 ④ 금리와 환율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된 관계에 있다.
- ⑤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의 이자율이다.

5.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례는 통화가 평가 절상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수입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 수 있다.
- ② ㉡의 이유는 정책금리가 인하된 경우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 ③ 통화가 평가 절하된 국가와 교역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통화가 평가 절하된 국가의 통화의 표시 가격이 이전보다 더 저렴해지므로, 통화가 평가 절하된 국가는 ㉢을 이룰 수 있다.
- ④ ㉣은 금리를 인상하여 외국 자본을 유입시켜야 함을 뜻한다.
- ⑤ ㉤을 수행하려는 국가는 시중에 외환을 판매하여 자국의 통화를 얻음으로써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시켜야 한다.

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통화정책 (가)~(다)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영향을 예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가) 공개시장운영(OMO) :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도하거나 매입하여 통화량을 통제함.

(나) 은행의 지급준비율 통제 :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규제하여 통화량을 통제함.

(다) 재할인율 통제 : 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해주거나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통제함.

\*지급준비율 : 은행이 가진 예금 중 일부는 대출 업무에 사용하고 대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예금은 유사시에 대비해 은행에 보관하는 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 한다. 은행 전체 예금 중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어음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르기로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때 어음을 소지한 자가 어음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여길 경우 은행에서 그 대금의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을 받고 어음을 판매한다.

- ① (가)를 통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할 경우, 중앙은행이 재정금리를 인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군.
- ② (나)를 통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이후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소진되는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는 타국의 통화에 비하여 평가 절하되겠군.
- ③ (나)를 통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중앙은행이 재정금리를 인상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군.
- ④ (다)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어음 판매를 통하여 시중 은행이 얻게 되는 금액도 늘어나겠군.
- ⑤ (다)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시중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하겠군.

7. 문맥상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다른 것에 예속되지 아니한 상태로 됨.
- ② ㉡: 병이 완전히 나음.
- ③ ㉢: 기운차게 뛰어다님.
- ④ ㉣: 충분히 잘 이용함.
- ⑤ ㉤: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함.